

실수는 곧 추락... 더 뜨거워진 K리그1 파이널

상·하위 6개팀씩 나눠 주말부터 파이널라운드 시작 경기수 줄어 순위간 격차 적어... 순위표 요동칠 듯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0이 '비정한 다섯라운드'만을 남겨졌다. 상·하위 6개 팀씩 나뉘어 오는 주말부터 치르는 파이널라운드 결과에 따라 최종 우승팀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그리고 K리그2(2부 리그) 강등팀이 정해진다.

2012시즌부터 시작돼 올해로 9시즌째를 맞는 이 스피릿 시스템 아래서 수많은 명승부가 연출됐다.

올 시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각 팀의 정규라운드 경기 수가 33경기에서 22경기로 줄어들어 순위간 승점 격차

가 매우 적은 상황이어서 더 살 떨리는 순위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파이널라운드 진입 시점에 1위였던 팀이 우승을 놓친 것은 통산 2차례 있었다.

2016시즌 정규 라운드 종료 시점에 전북 현대가 승점 60점으로 선두였고, FC서울은 승점 56점으로 2위였다. 그런데 2013년 벌어진 전북 전임 스카우트의 심판매수 행위 때문에 2016년 9월 30일 징계가 내려져 전북의 승점이 9점 깎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서울이 승점 70점을 쌓아 역전 우승을 차지했고, 전북은 승

점 67점으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 시즌은 K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우승팀이 정해진 시즌으로 꼽힌다.

정규 라운드 종료 시점 울산 현대가 승점 69점으로 1위, 전북이 한 점 뒤진 2위였다.

살얼음판 승부는 최종전에서야 갈렸다. 울산이 포항에 1-4로 대패하고 전북이 강원에 1-0으로 이기면서 전북이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두 팀의 승점은 79점으로 같았으나, 다득점에서 전북이 72점으로 한 점 앞섰다.

올 시즌에도 선두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차는 2점에 불과하다.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승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파이널B에서는 더 극적인 순위 경

쟁이 펼쳐졌다.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은 늘 '잔류왕' 인천이었다.

파이널라운드 진입 시점에 최하위나 11위에 있던 팀이 강등되지 않은 사례는 4차례에 불과하다. 이 4차례 '역전 잔류'를 모두 인천이 해냈다.

인천은 2018년 파이널라운드에서 파죽의 4연승을 달리 최하위에서 최종 9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6, 2017시즌과 지난 시즌에는 모두 11위에서 파이널라운드를 시작해 9-10위로 순위를 올리며 시즌을 마쳤다.

4년 연속 극적 잔류에 성공한 인천은 올 시즌에도 어김없이 최하위 강등권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타 또 한 번의 '기적'을 예고한다. 연합뉴스

EPL '44골' 신기록... '4골' 손흥민 한몫

20개팀 단일라운드 최다골 아시아 선수 기록 새로 써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4골을 몰아넣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020-2021시즌 2라운드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19~21일(이하 현지시간) 벌어진 20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10경기에서는 총 44골이 터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44골은 20개팀 체제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일라운드 최다 골 신기록이다.

1992-1993시즌 출범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라운드 최다 골 기록은 1993년 5월 8~9일 작성된 53골이다. 하지만 당시 프리미어리그는 22개팀이 참여해 라운드당 11경기를 치렀다.

지금과 같은 20개팀이 경쟁하게 된 1995-1996시즌 이후로는 2011년 2월 5~6일 세워진 43골이 라운드 최다 기록이었다.

이번 시즌 2라운드에서는 화끈한 골 잔치가 벌어졌다.

에버턴-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5-2), 리즈 유나이티드-풀럼(4-3), 사우샘프턴-토트넘(2-5) 경기에서는 양 팀 통틀어 7골씩이 쏟아졌다.

레스터 시티-번리(4-2) 경기에서도 6골이나 나왔다.

가장 적은 골이 터진 것이 21일 열린 애스턴 빌라-세필드 유나이티드



4골을 터뜨리며 기뻐하는 손흥민

(1-0) 경기였다. 신기록 수립에는 손흥민도 한몫 단단히 했다. 44골 가운데 4골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20일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4골을 몰아넣으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1호 헤트트릭(3골)을 작성한 것은 물론

프로팀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아시아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골 기록도 새로 썼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벽은 높았다

슈와르츠만 돌풍 잠재우고 로마 마스터스 대회 우승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346만 5045유로) 단식 정상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15위·아르헨티나)을 2-0(7-5 6-3)으로 물리쳤다.

우승 상금 20만5200유로(약 2억 8000만원)를 받은 조코비치는 이 대회에서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조코비치는 또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에서 통산 36번째 우승을 차지, 라파엘나달(2위·스페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최다 우승 기록을 새롭게 썼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1년에 9차례 열리는 대회로 메이저 다음 등급에 해당한다. 나달은 이번 대회 8강에서 슈와르츠만에게 0-2(2-6 5-7)로 져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클레이코र्ट에서 열린 이번 대회를 제패하며 27일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 전망을 밝게 했다.

또 이달 초 US오픈 16강에서 실점 후 신경질적으로 쳐 보낸 공이 선



노바크 조코비치(세계랭킹 1위·세르비아)가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346만 5045유로) 단식 결승에서 준결승까지 돌풍을 이어온 디에고 슈와르츠만(세계랭킹 15위·아르헨티나)을 2-0(7-5 6-3)으로 물리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 목 부위에 맞아 실격패 당한 충격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키 170cm의 단식 슈와르츠만은 이번 대회 8강에서 대회 3연패에 통산 10번째 우승을 노린 나달을 꺾는 등

돌풍을 일으켰으나 조코비치의 벽은 넘지 못했다.

함께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209만8290달러)에서는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가 우승했다. 연합뉴스

할레프는 카롤리나 플리스코바(4위·체코)와 결승에서 1세트를 6-0으로 이기고, 2세트도 2-1로 앞선 상황에서 상대가 왼쪽 허벅지 통증 때문에 기권해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20만5190유로다. 연합뉴스

'4% 확률로 1순위' GS칼텍스, 세터 김지원 지명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4%의 확률로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제천여고의 세터 김지원을 품에 안았다.



김지원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22일 서울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2020-2021 한국배구연맹(KOVO)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김지원을 1라운드 1순위로 지명했다.


경해여중을 졸업하고 제천여고에 재학 중인 김지원은 키 173.1cm, 몸무게 68.2kg의 체격 조건을 가진 세터다. 김지원은 "GS칼텍스가 믿고 뽑아준 만큼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터가 1라운드 1순위로 선정된 사례는 2017-2018시즌 한수진(GS칼텍스), 2008-2009시즌 염혜선(현대건설)을 이어 김지원이 역대 세 번째다. 제천여고에서 전체 1순위 지명 선수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19-2020시즌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한 GS칼텍스는 지난 시즌 순위 역순에 따라 4%의 추첨 확률로 드래프트에 참가했으나 1순위 지명권을 얻는 행운을 잡았다.

KGC인삼공사와 IBK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는 각각 레프트 이선우(남성여고), 최정민(한빛고), 김정아(제천여고)를 1라운드로 선발했다. 흥국생명엔 세터 박혜진(선명여고), 현대건설엔 리베로 한미르(선명여고)를 1라운드 지명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